

반딧불이야, 안녕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한밤중, 하강하는 듯 솟아오르는 듯 느릿하게 유명하며 마당 한편을 배회하는 반딧불이를 보았다. '개똥벌레' 혹은 '반디'라고도 하는 불리는 그 벌레가 돌아왔다. 사실 나는 고사성어인 '형설지공'이란 말이 믿기지 않는다. 아주 어릴 적 유리병에 반디를 잡아 넣고 글자가 보이는지를 실험했는데 아예 불가능했다. 그래서 형설지공이란 고사성어를 배울때 은근히 반발한 적이 있다. 마당에 나무가 우거져 가로등 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만 날으는 반딧불이가 가엽기도하고, 가상하기도 하다.

처음 반딧불이를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을 깨워 함침이나 마당에 앉혀놓고 법석을 떠는 기억이 난다. 아이들은 처음 신기한 듯 떠다니는 '형광' 빛을 바라봤지만 곧 시들해져 나 혼자 추억에 잠겼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나는 마당에서 살았다. 그게 밤을 보내는 일과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위안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대개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

는 짙은 어둠속이었다. 심지어는 밤 열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그 시절 직장인이라면 다들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랬다. 돌아와 불빛 하나 없는 골짜기, 마당에 외등도 꺼놓고는 한동안 반딧불이 불빛을 감상하고는 들어가 잠들었다.

여전히 우리 마당에는 반디가 살고 있다. 그 반딧불이를 사랑한다. 그러나 언제 소멸할지는 가능조차 할 수 없다. 다만 머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지금 내 마당에 반딧불이가 서식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얼마전 어떤 바다거북이는 암컷만 생겨나 멸종할거라는 뉴스를 보았다. 그 거북이는 바다가 온난해져 암컷만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성장하면서 성이 결정되는 이유에서다. 우리 마당의 반딧불이도 이미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 징후가 엿보인지 우려해 전이다.

집을 지은 후 처음 우리집에서 발견된 건 도롱뇽이다. 도롱뇽도 완전히 사라졌다. 차가운 침출수 웅덩이가 있어 도롱뇽이 부화하기에 알맞았다. 그 웅덩이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밭에 물도 주고, 밭갈이 잦아 도롱뇽은 소멸했다. 애당초 도롱뇽은 여기 당당한 잣나무골의 일원이었으나 주인이지 않은 우리가 주인을 소멸시킨 거나 다름 없었다.

더군다나 요즘 슬슬 사라져가는 것 중에는 벌과 나비도 있다. 요즘에 꽃처럼 만발해야 할 곤충이 벌, 나비다. 특히 벌은 분주해야 한다. 대체로 벌꿀은 아카시아꽃이 필때와 밤꽃 필 때 수확한다. 그리고 가을 꽃이 피면 일년에 세차례 벌꿀을 수확하므로 지금 두번째 수확기를 거치며 분주해야 맞다. 그러나 지금 어느 숲에서도 벌을 보기는 쉽지 않다. 이제 양봉업자의 별통만 남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싶다.

그렇게 많던 참새가 잠시 돌아왔다고는 하나 예전 처럼 많지는 않다. 그리곤 까치나 꿩도 보기 어렵다. 이사왔을 당시 새소리가 소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풀벌레소리도 크게 줄었다. 아파트 불빛이 대낮같은 도시는 오죽하랴. 그것들이야 다 곤충들이고, 없어진다고 무엇이 불편하랴만... 벌이 사라지면 동식물 수만종이 함께 소멸한다는 것은 이미 수도 없이 경고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대부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경고가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기서 도롱뇽이 사라지는 걸 보았으며 벌과 나비가 스러져 가는 걸 목도하고 있다. 그저 어찌 할 수 없이, 다음 단계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여의도의 검찰화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긴장감이 고조되던 여의도는, 이제는 그 긴장감을 디폴트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금융투자업계에 강력하게 던져졌던 경고들이 잔류하면서 시장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자주 꼽는 이 원장의 키워드는 '검찰식 검사'다. 의혹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이 많았다는 평가다. 결국에는 감독 및 제재 등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점에서 시장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부터 소시에티제네탈(SG)발 주가폭락 사

태, 불법공매도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금융투자업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이 원장은 증권업계 입성 후 '다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꺼내들었다. 이 여파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등의 중징계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후 증권·금융투자업계의 '세대교체'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금감원장 자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등이 맡아왔다. 금감원의 스타일이 이전과는 확연히 바뀐 것이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던 만큼, 금감원장 취임 후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금감원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이 원장은 현안을 파격적으로 처리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 또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상

위 부처였던 금융위와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요즘 여의도의 실세는 금감원이다.

반면, '관치 금융'이라는 수식어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증권사 성과급 지급 체계에 대한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강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원장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가운데, 어느새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이 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되면서 밸류업 등 관련 정책이 힘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임과 동시에 시장의 기대가 집중돼 있는 만큼 '윤의 남자'인 이 원장이 각종 현안을 잘 마무리해 주길 기대해 본다.

/goche@

오늘의 운세 6월 5일 (금 4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천국에는 예술이 있을까. 48년생 처절하리만큼 아픈 사랑도 있으니. 60년생 슬픔과 고통은 창조적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슬퍼 말자. 72년생 물러설 때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지름길. 84년생 금전 결핍도 무섭고 애정 결핍도 무섭다.
- 소** 37년생 퇴직했어도 분투해서 노력하여 일어난다. 49년생 노력에 따라 발전도 가능. 61년생 하나는 일시적 감정일요 하나는 결실을 이루는 감정인데. 73년생 사랑에는 질투가 따르니 잘 선택. 85년생 현실은 돈이 있어야 하니 좀 더 일하자.
- 호랑이** 38년생 망설이다가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50년생 계획이 없으면 늘 허무하다. 62년생 돈은 현실의 힘이니 어디든지 취직하도록. 74년생 고목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니 행운이 온다. 86년생 인생에는 인과과 있으니 좀 베풀도록.
- 토끼** 39년생 호랑이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51년생 적금을 타니 너무나 행복하다. 63년생 부자는 일반적 소원이지만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 75년생 공부로 창조력을 키워라. 87년생 가정이란 비전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
- 염** 40년생 돈도 있어야 하니 현실의 꿈을 향해서. 52년생 강남의 제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64년생 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는 힘이 있다. 76년생 침묵이 금이지만 말할 시기. 88년생 또다시 내일을 위해서 도전.
- 뱀** 41년생 남의 땅의 넓은 들판도 부럽지 않다. 53년생 재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신념으로 자신 것으로 만들어야. 65년생 행복만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77년생 발전은 노력에 따라온다. 89년생 다시 용기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자.
- 말** 42년생 태양 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54년생 아침부터 손풍에 뚫뚫해 가듯이 매우 순조로운 하루. 66년생 사랑이 어디 감미롭기만 하던가. 78년생 고뇌의 가시밭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 90년생 돈 벌기에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 양** 43년생 지금의 공부함은 저축으로 기반을 다지고 왔다. 55년생 변화 없는 순조로운 하루. 67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79년생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노력 뒤엔 성과가 따른다. 91년생 목숨의 의미는 죽음에서 풀이되는 것이다.
- 원숭이** 44년생 행동의 폭이 넓어지는 하루. 56년생 절약과 인색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68년생 독서의 즐거움은 승진에도 적용될 수. 80년생 일이 안 풀린다고 우는소리 하지 마라 인생사 모두 내 탓이다. 92년생 지하철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본다.
- 닭** 45년생 집안의 청소를 내가 해보는 것도. 57년생 뚝뚝의 좋은 일이 있었다. 69년생 제시 간에 꼭 일어나는 습관을. 81년생 면접에서 탈락했다면 자기 수양에 대해 질문해보라. 93년생 자녀가 사회에서 갖는 도덕성은 가정에서 기초가 된다.
- 개** 46년생 열심히 일하며 맘 풀리자. 58년생 뿌린 대로 거두니 착하게 살자. 70년생 뒤편 봉사에서부터 시작해보라. 82년생 과일도 제 위치가 있으며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익는다. 94년생 사주는 믿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다.
- 돼지** 47년생 자식의 독립은 금전적 독립 없이는 힘들다. 59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 71년생 항상심을 갖자. 83년생 연애는 우정과 다르니 남자친구의 여자 친구에게 예의를. 95년생 가정은 사회의 표본이니 집에서 책임을 다하자.



김상회의四季 풍수의 대가

현대에 들어 풍수의 영역을 미신적인 관점이 아닌 설득력 있는 지리학적 환경학적 관점이 겸비된 과학성을 부여한 인물이 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이다. 필자 역시 명리학의 길에 들어 서면서 풍수에 관한 기초와 이론을 접하였고 이에 관한 실증 공부 차원에서 스승님을 따라 한국의 좌청룡 우백호라 이름난 곳들을 열심히 탐방했다. 풍수를 과학성을 지닌 학문으로 격상시키고자 실제로 명당 찾기에 올인하던 풍수계의 풍토를 사람과 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서로를 살리며 살아나가는 자생풍수를 확립하고자 헌신한 분이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명당의 주인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을 터이다. 부와 권력의 유전으로서 풍수의 관점이 고착된 것을 안타까워했었을 것이란 느낌은 그분의 여러 기고와 주장에서도 확고하게 느낄 수가 있다. 누구라도 자신이 처한 곳에서 충분히 흥을 보유했고 더 나아가 길로 바꿀 수 있음도 주장하였다. 어찌 보면 서민 풍수라 이름해도 가할 것이다. 지리학적인 관점에서라도 사실이 그러한 반열로 올리고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헌신했다. 그것도 과거 전통지식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와 미래에 환경생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상으로 풍수를 올려놓았다.

“후반기에는 중국 풍수와는 다른 한국적인 자생풍수의 정체성과 땅과 사람이 상보한다는 비보적 사상성을 확립시키고자 했다” 고인의 서울대 제자인 최원석 경강국립대 교수의 평가다. 최 교수는 “땅을 어머니처럼 내 몸처럼 대하라는 최창조 교수의 사회적 메시지는 오늘날 기후위기에 커다란 통찰과 울림을 던진다”라고도 했다. 한국의 근대 풍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고 최창조 교수를 추모하면서 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4시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4		3	2	9
		9	4		3
8		2			
	2		5	9	7
1		4	9	2	6
	6	7	4		5
			5		8
4		8	6		
2	8	6		9	7

4			5		6
	7		1	3	9
	6	2		5	
5	8		3	2	
	3				1
		1	4		6
		4		2	5
	4	7	5	6	
1		8			7

2	6	9	6	8	9	1	2
9	2	8	9	1	8	6	2
8	7	1	9	2	8	6	9
2	9	8	1	7	8	9	6
9	8	2	6	7	9	8	1
1	2	6	8	9	7	2	8
8	9	9	6	2	1	8	8
8	1	9	7	8	6	2	9
6	8	2	8	1	9	7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5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